

고용부 산재기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627억 투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 논란 산재보험기금 본래 취지에 어긋나 기금 운용 지침 개선 필요성 제기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9140억원 중 626억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원)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 8172만원,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원, 4번), DL이앤씨(63억5246만원,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원, 9번), 한화(12억3892만원, 6번), 대우건설(9억 1434만원,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관리한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국토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는 21일 세종시 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 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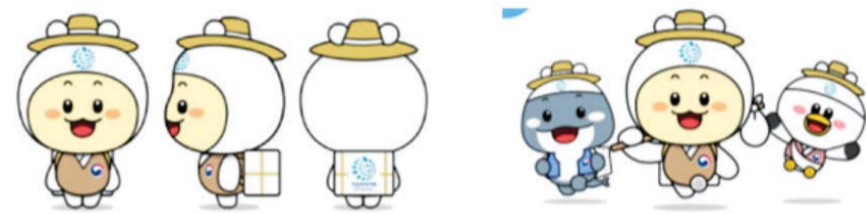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했다.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세종=김대환 기자 kdrh@

수출 길 넓힌다... 자유무역지역 기업들 글로벌 도전

산업부, ‘LeapUp Expo’ 개최 킨텍스서 22일~23일 수출상담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 박차”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 이미지. /산업부

국내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와 30여개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뿔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22일~23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하반기 북업코리아 수

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올해 북업코리아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지자체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오알에스코리아, 예림도장기 등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업 14개사가 참가하며, 참가 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도 전시된다.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 도전 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기업 발굴 본격화

농식품부, 스타기업 제5호 선정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제5호에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강원 양구의 김철호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와의 부가가치 창

출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업이다. 자체 퇴비 제작, 초생재배법 적용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초생재배법이란 과수원 수목 하부에 각종 초류를 유지함으로써 강우시 토양 유실 및 양분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을 이끌어내는 재배 방법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제철에 맞춰 배송하는 구독형 상품 ‘사과 사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 수확 시 상처가 생긴 저품질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농가와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의 잉여 사과를 수매해 탄산주스, 과일칩 등을 제조함으로써 약 3배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사과따기 체험(팜크니)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5명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우리 과수농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순히 먹기만 하는 농산물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폴리텍

반도체 등 16개 계열서 교수 100명 대거 채용

한국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16개 계열에서 교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5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교원 충원이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반도체 19명, 바이오 9명 등 첨단 분야 초빙 인원은 총 43명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등에 따라 전통산업 고도화를 이끌 교원 수급도 이뤄진다.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한다. 임용은 2025년 2월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수인재를 확보해 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평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대전환을 이뤄 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2개월 만에 4개 道 소 럽피스킨 확산

농식품부, 축산 종사자 이동금지 명령

양성으로 판명됐다.

지난 19일 경북 상주에서 올해 10번째 소 럽피스킨(LSD)이 발병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이후 최근 두 달간 LSD 발생 지역 수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4곳으로 늘었다. 경기(4건)와 강원(4건), 충북(1건), 경북(1건)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소재 한 한우농장이 피부결절의 심축 1두에 대해 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전날인 19일 오후 LSD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 발생지역 상주와 인접 9개 시·군(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 김천, 충북 영동, 옥천, 보은, 괴산)의 축산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연세 기자 kys@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군산시·창녕·철원군 선발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 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세종=김대환 기자